



濁流清論

제22호 2012년 11월 18일(목)

발행인 : 장영구 / 편집 : 편집위원회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접수하실 원고를 교수회 전자 메일 (lisani@ajou.ac.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위의 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 차 >

펀드투자 및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 및 정보공개 문제들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요약	1
총장 업무 수행 평가 설문조사 결과	6
해석과 의견-총장 업무수행 평가 설문조사 결과 보고	10
교수들의 건강 칼럼 : 불면증-약 쓰지 않고 극복하기	12
소통과 담론-싸이(Psy)의 <강남 스타일> 일기: BPM 뽕깨를 중심으로	14
소식	

편집자의 편지

독자 여러분. 이번 <탁류청론>은 특집호로 발행합니다. <탁류청론>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교수사회의 여론을 모으고 살피서 보다 높은 차원의 대학이념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편집방침의 연장선 상에서 <펀드투자 조사결과 보고서> 요약본과 지난 9월에 시행된 <총장업무수행평가 여론조사 결과>자료를 공개하는 특집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집호를 통해 아주대학교라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교수사회의 성찰과 토론이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펀드투자 및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 및 정보공개 문제들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요약

펀드문제 진상조사 위원회

1. 조사의 배경

본교가 예금 외의 다른 형태(펀드투자)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대학구성원들에게 처음 알려진 것은 제9차 대학평의위원회(2009.02.02.)이다. '2008학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관리운영비 항목에 자금운용수수료 6천8백만원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대학평의위원회는 펀드투자 내역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대학본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우리 대학의 유가증권 간접투자상품(펀드) 투자는 발전기금, 건축기금 등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장기투자의 성격'이며 '펀드 투자의 전체 규모 및 학교자금 대비 비율, 펀드 투자 성과의 교비예산 편성 및 사용, 결산 반영 등의 제반 관련 행정이 모두 적법'하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

펀드투자를 처음 허용한 2007년 12월 28일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 전에 투자되거나 유동자금을 재원으로 한 펀드투자는 모두 위법이며, 이와 관련하여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과 펀드투자 관련 정보를 아주 제한적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공개한 것은 심각한 잘못이라는 대학구성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대학본부는 2회(2010.05.25와 2010.06.01.)에 걸쳐 ‘**공식 의견**’을 내며 **펀드투자의 위법성 및 재무제표 작성 상의 문제를 부정**하였다.

교수회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아주대학교 교비 불법투자 및 분식회계에 대한 감사요청’을 하였으며 교과부는 2010년 12월 21일부터 12월 24일의 기간 동안 실태점검을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수회가 질의한 18건의 사안 중 **14건에 대해 본교의 관련 규정 위반을 확인**하였으며, 실태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에 엄중 “경고” 조치**’하고 ‘**제발방지**’를 요구하며 조치결과를 관련 증빙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2.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활동

2012학년도에 접어들어 대학본부와 교수회가 독립적 조사위원회를 통하여 펀드투자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펀드투자 및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와 정보공개 문제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위원회는 대학본부와 교수회가 각각 공인회계사 1인과 교수 1인을 추천하여 총 4명(공인회계사 황효진, 공인회계사 김영무, 경영대 교수 한봉희, 자연대 교수 이순일)으로 구성하였다. 조사위원회의 활동은 펀드 투자 문제와 관련된 제반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하였으며, 중요 자료들은 조사보고서 후미에 첨부되어 있다. 펀드투자 내역과 이에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료는 총무처장의 협조 하에 위원회가 요청하면 총무처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보하였다. 진상조사 결과는 총장과 교수회 의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2012년 10월 17일 구두 보고 되었으며, 최종보고서로 총장과 교수회 의장에게 각각 제출되었다.

3. 펀드투자 요약

(1) 펀드투자 규모 및 계좌보유 현황

본교는 2005학년도 이후 결산기준 49개의 펀드에 투자하였으며, 또한 회계연도 중에 매수 및 환매를 완료하여 결산서에 표시되지 않은 28개의 펀드에 투자를 하였다. 즉, 본교가 투자한 펀드 계좌의 수는 총 77개이다. 매수원가 기준으로 결산서에 기재된 49개 펀드계좌를 통해 90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추가로 회계연도 중에 매수 및 환매가 완료된 28개 펀드계좌에 579억원을 투자하였다. 따라서 전체 펀드투자 규모는 매수가 기준 1,479억원이다. 결산서에 기재된 49개 펀드계좌 중에서 42개는 환매가 이루어진 반면, 손실이 큰 7개 계좌는 아직까지도 보유 중이다. **유동자금을 재원으로 이루어진 펀드투자는** 결산서 기준 2004학년도 87.45억원, 2005학년도 28.40억원, 2006학년도 38.12억원, 2007학년도 35억원이다.

(2) 회계연도 중에 매수·환매가 완료된 펀드의 손익

회계연도 중에 매수·환매가 완료된 28개 펀드계좌의 총 환매액은 598.9억원으로 환매수익은 총 19.89억원이며, 이는 3.43%의 수익률에 해당한다. 28개 계좌의 누적 보유일은 3,222일로 계좌별 평균보유일은 115일이며, 계좌 하나당의 평균 매수원가 및 평균 환매수익은 각각 20.68억원과 7천1백만원이다.

(3) 결산서 기재 펀드 중 환매분의 손익

환매한 42개 펀드의 총 매수원가는 812.1억원이고 환매총액은 827.99억원으로 총 환매수익은 15.89억원이며, 이는 수익률 1.96%에 해당한다. 42개 펀드계좌의 누적 보유일은 25,708일로 계좌별 평균보유일은 612일이며, 계좌 당 평균 매수원가 및 평균 환매수익은 각각 19.34억원과 3천8백만원이다. 이는 펀드계좌별 연평균 수익률이 1.17%로 정기예금의 금리에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각 펀드의 매수원금을 고정이율로 적립한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이자수익을 연이율 5%나 6%로 실제 보유기간에 대해 계산하고 환매손익과 비교하면 기대이자 손실분(기회비용) 총액은 -38.47억원(이자율 5%) 또는 -49.99억원(이자율 6%)이

된다. 상기한 총 환매수익 15.89억 원에서 총 기회비용(기대이자 손실) -38.47억 원(이자율 5%) 또는 -49.99억 원(이자율 6%)을 차감하고 나면 환매한 42개 펀드의 총 손실은 -22.58억 원(이자율 5%) 또는 -34.10억 원(이자율 6%)이 된다.

(4) 결산서 기재 펀드 중 보유분의 손익

환매를 못한 7개 펀드의 매수원가는 88.12억원인 반면, 2012년 6월 30일 현재 평가액은 56.96억원에 불과해 -31.16억원의 평가손실을 보이고 있다. 아직 보유중인 7개 펀드에 대한 기회비용(기대이자 손실) 총액은 -22.84억 원(이자율 5%) 또는 -27.44억 원(이자율 6%)이다. 7개 펀드 중 해외부동산펀드의 경우에는 선물환 계약으로 인한 추가 손실이 발생하였다. 2007년 2월 16일자 1차 선물환계약 만기로 인한 정산손실액은 -6천4백만원으로 이미 지급되었다. 2008년 2월 16일자 2차 선물환계약 만기와 더불어 발생한 추가 정산손실액 -13.31억 원은 재단/대학이 “계약무효”를 사유로 결제하지 않고 있다. 하나는행에서는 정산원금 13.31억 원이 미지급되어 선물환가지급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추가된 선물환가지급금 이자가 2012년 5월 4일 현재 7.28억 원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선물환 관련 (미정)손실은 -21.23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상기한 평가손 -31.16억 원과 기회비용(이자수익 손실) -22.84억 원(이자율 5%) 또는 -27.44억 원(이자율 6%)에 선물환 계약으로 인한 추가 손실 -21.23억 원을 더하면, 아직 환매를 못한 7개 펀드로 인한 전체 손실은 -75.23억 원(이자율 5%) 또는 -79.83억 원(이자율 6%)이다.

(5) 펀드 투자 총 손익

환매한 42개 펀드의 실현이익 34.72억 원에서 실현손실 18.83억 원, 기회비용(이자율 5%) 38.47억 원을 차감한 순손실은 -22.58억 원이다. 또한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7개 펀드의 평가손실 -3,116만원과 기회비용(이자율 5%) -2,284백만원을 더하면 순손실은 -54.00억 원이다. 위의 두 순손실을 합산한 순손실소계는 -76.58억 원이며, 회계연도 중에 매수·환매 완료된 28개 펀드계좌의 실현이익 19.89억 원을 더하면 순손실은 -56.69억 원이 된다. 여기에

선물환 관련 미정 손실 -21.23억 원을 더하면 순손실 총액은 -77.92억 원(이자율 5%)이 된다.

이자율 6% 기준으로 순손실을 다시 추산하면, 환매한 42개 펀드와 아직 보유 중인 7개 펀드에 대한 기회비용은 각각 49.99억 원과 27.44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이를 반영한 순손실은 환매한 42개 펀드는 -34.10억 원, 아직 보유 중인 7개 펀드는 -58.60억 원이 된다. 따라서 두 순손실을 합산한 손실소계는 -92.70억 원이 되며, 여기에 회계연도 중에 매수·환매 완료된 28개 펀드계좌의 실현이익 1,989억 원을 더하면 순손실은 -7,281백만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선물환 관련 미정 손실 -21.23억 원을 더하면 순손실 총액은 -94.04억 원(이자율 6%)이 된다.

4. 펀드투자 관련 논점들에 대한 판단

(1) 2007.12.28 이전 펀드투자의 법적 근거에 대한 판단

사학기관의 증권투자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된 2007년 12월 28일 이후이나, 본교는 이보다 최소 3년 전(2005년)부터 펀드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 12월 13일자 공문(제목: 사학기관 유동자금 및 적립금 증권투자 관련 실태점검 결과 통보)에서 본교가 ‘06-’07년도에 유동자금 및 적립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증권투자 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은 본교의 펀드투자가 금융기관에의 예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즉, 2007.12.28 이전에 이루어진 본교의 펀드투자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법한 것이다.

(2) 펀드투자 재원과 관련된 판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 후에도 제22조의2(적립금 적립 및 사용) 제②항에 따르면 적립금으로만 펀드투자가 가능하고, 사학기관이 증권투자를 할 수 있는 한도는 적립금의 1/2 내이다. 또한, 이런 규칙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학들이 특정기금으로 취득한 펀드상품을 예금으로 분류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침(「교비회계 적립금 투자·운용 현황보고 작성법」)이 2009년 4월 15일에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과학부)으로부터 전국의 모든 사립대학에 하달되었다. 그러나 본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 후에도 유동자금에서 펀드투자를 하였으며, 적립금의 1/2을 초과하여 펀드에 투자한 문제의 해소에도 적극 나서지 않았다. 더욱이 이미 증권투자 총액이 적립금의 1/2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고 있는 투자한도 제한규정을 위배하면서 50억원을 2008년 2월 26일자로 펀드에 추가 투자한 것은 행정과실이다. 2008학년도 결산일 기준 본교의 적립금은 562억원이며 펀드투자 규모는 293억원(주식형 233억원 + 채권형 60억원)으로, 펀드투자액은 적립금의 1/2 한도(281억원)를 분명히 초과한다. 또한, 채권형펀드 60억원을 유동자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임의 변경하여 제외시키고 펀드투자액이 233억원인 것으로 보고한 것은 적립금(특정기금)을 “필히 운용형태별(예금, 채권, 주식, 수익증권 및 펀드, 파생금융상품)로 기재”하도록 요구한 감독관청인 교육과학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대학본부는 유동자금과 적립기금을 통합운영하며 구별하지 않고 펀드에 투자하였고 펀드투자 내역도 결산 시점에 임의적으로 적립금이나 유동자금에 귀속시켜 보고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교과부는 교수회와 대학본부에 보내온 공문을 통해 유동자금과 적립기금의 통합 운영은 물론 유동자금의 펀드투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명시적인 규정의 존재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유동자금 재원의 펀드투자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3) 해외부동산펀드 관련 선물환 거래의 위법성과 손실액 처리에 대한 판단

본교는 하나대투증권을 통해 해외부동산펀드에 28억원(2007.02.06)을 투자하면서 이를 담보로 297만달러의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만료 시점에서 13.95억원의 청산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선물환 거래 시 담보 제공의 불법성 문제가 대학구성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12월 13일자 공문(사학기관 유동자금 및 적립금

증권투자 관련 실태점검 결과 통보)에서 본교의 ‘적립금 부당 질권 설정’을 적시하며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및 시행령 제5조(재산의 구분)을 근거로 본교가 ‘07년도에 해외부동산 펀드(2,812백만원) 투자 하면서 관할청 허가 없이 질권 설정한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본교의 부동산펀드를 담보로 한 선물환 계약의 불법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4) 펀드투자와 관련하여 의도적 회계처리 왜곡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09학년도까지 유동자금과 특정기금을 별도로 분리 운용하지 않고 통합 운용하였으며, 단지 사후적으로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 펀드투자와 채권투자 내역을 임의적으로 유동자금 또는 적립금(특정기금)에 귀속시켰을 뿐이라는 대학본부의 주장은 본교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동일 펀드계좌를 유동자금 또는 적립금(특정기금)으로 임의로 변경 귀속시킨 경우가 총 7건 113억원(부동산펀드 18억원, 주식형펀드 35억원, 채권형펀드 60억원) 있는 바, 이는 계정분류가 적절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계정분류의 의도적 왜곡은 총 펀드투자 내역을 교육과학부의 지침에 따라 보고할 경우에 적립금의 1/2 한도를 초과하여 펀드에 투자한 문제와 기금별 손실액이 펀드투자인금의 1/2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펀드투자와 채권투자 내역을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 임의적으로 유동자금과 각 특정기금에 귀속시킨 본교의 경우에는 유가증권 취득가액의 2분의 1 손실 여부를 용도별 적립금 재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결산에 반영하라는 교과부 지침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펀드투자와 관련하여 회계처리 왜곡이 있었던 사실은 대우증권의 ELS(삼성SDI) 20억원과 ELS(LG 전자 외) 30억원에서 각각 발생한 2008년 결산일 기준 4.96억원과 13.87억원의 확정손실 처리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2007년 7월 31일과 2008년 2월 28일자 ‘예금이자 회계처리(안)’이라는 내부결제 문서를 보면 처음에는

펀드 환매 손실 18.83억 원을 선수수익(또는 기타선수금)으로 잡았다가, 나중에는 예금이자에서 차감하여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펀드손실을 회계 중에는 음의 선수수익으로 처리하고 결산자료에는 이자총액에서 손실분을 차감한 결과를 예금이자로 기장한 것은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감추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회계처리를 왜곡하였기에 대학평의원회의 결산자문 때도 펀드투자에서 확정손실 18.83억원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본교의 펀드투자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대학구성원들이 펀드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학본부가 수차례 공식 입장을 밝히고 관련 처장들이 대학평의원회에 나와 발언하는 가운데도 확정손실이 발생한 사실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 시에도 총무처가 본 조사위원회에 제공한 최초 자료에는 대우증권의 ELS(LG 전자 외) 확정손실 13.87억원이 누락되어 있었다. 그뿐 아니라 동 자료에는 실제 매수원금인 30억원에서 확정손실액 13.87억원을 차감한 16.13억원이 해당 펀드의 매수원금이며, 또한 매수원가와 같은 금액으로 펀드를 매도하여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5) 펀드투자자와 관련한 대학본부의 책임에 대한 판단

이번 조사를 통해 펀드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의사결정과 자금운용, 펀드투자 관련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 펀드투자 사실이 드러난 이후의 정보공개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본부는 과거 자금운용을 안정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펀드 투자를 과도하게 하고 이에 대한 보고를 부실하게 한 과오를 시인**하고, 본 보고서에 지적된 문제들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며, 펀드투자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모든 펀드투자 정보(2001학년도부터 예치한 모든 자금에 관한 투자종류, 투자기관, 투자일, 투자액, 투자종목, 투자기관, 발생이자, 이자율, 만기일, 인출일, 인출금액 등)를 반드시 ‘자료화(엑셀)’하여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②예·결산 자료 및 관련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회계처리가 왜곡된 사례들을 확인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③앞으로는 예·결산 자료 및 관련 재무제표를 포함한 중요 정보들을 대학평의원회 및 대학구성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대학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것을 권고한다. ④펀드투자로 인해 발생한 손실들을 처리한 과정은 적절했는가와 환매하지 못한 펀드들로 인한 추가 손실(기회비용 포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대학구성원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환매하지 못한 펀드들로 인한 상실이자 기회비용은 계속 누적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다. 대학본부가 원금회복 가능성이 없는 펀드들에 대해 손실 상태에서는 환매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이는 투자손실을 인정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된다. 대학본부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아직도 보유 중인 펀드들의 처리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정해야 할 것이다. ⑤선물환 정산손실과 관련하여, 선물환 계약 자체가 원인무효라는 것이 법인과 대학의 확고한 입장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하나은행 투자신탁부에서는 선물환 계약이 원인무효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선물환 가지급금 원금에 이자를 합산한 20.58억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2012년 5월 4일자 현재 선물환 가지급금 이자 7.28억원은 2010년 5월 31일 현재 가지급금 이자 2.91억 원에 비하여 4.31억원 증가한 것으로, 법인과 대학이 선물환 계약이 원인무효라는 입장은 고수하면서 어떤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지급금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선물환 가지급금 원금과 이자의 합계 20.58억원은 2012년 5월 4일 기준으로 평가한 담보펀드의 자산 가치 23.79억원의 86%를 상회한다. 이런 추세라면 1~2년 안에 상환을 요구받는 원금과 이자의 합산금액이 담보펀드의 자산 가치를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선물환 정산손실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곤란하며 대학본부는 재단과 협의하여 이 문제의 분명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총장 업무 수행 평가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참가율

- 1) 전체 응답자: 573명(연구년, 파견, 외국인교원 등 제외 인원) 중 242명 (42.2%)
- 2) 전체 응답자 중 직위비율: 조교수 20% , 부교수 35%, 정교수 45%.
- 3) 설문참가율

- (1) 본교 인원 : 354명 중 197명(55.6%)
 - 조교수: 56명 중 33명 (58.9%)
 - 부교수: 118명 중 70명(59.3%)
 - 교 수: 180명 중 94명(52.2%)

- (2) 의대 인원 : 219명 중 45명(20.5%)
 - 조교수: 62명 중 15명(24.1%)
 - 부교수: 61명 중 14명(22.9%)
 - 교 수: 96명 중 16명(16.6%)

2. 전체 항목별 평가 평균 점수

※ 4점 만점 (100점 만점 환산 점수)

항목	본교	의과대학	전체
Part. I 비전과 역량	2.172 (54.3)	2.405 (60.1)	2.215 (55.4)
Part. II 노력	2.356 (58.9)	2.486 (62.2)	2.38 (59.5)
Part. III 결과 및 성과	2.091 (52.3)	2.285 (57.1)	2.127 (53.2)

3. 전반적 업무 수행 만족도

무응답	12명	5.0%
매우불만족	39명	16.1%
불만족	118명	48.8%
만족	66명	27.3%
매우만족	7명	2.9%

4. 단과 대학별 평균 점수 비교

※ 100점 만점 환산 점수

분류 \ 대학	공대	정통대	자연	경영	인문	사과	법대	교대	약대	의대	기초
전체 항목	62.0	55.9	62.3	36.7	56.2	47.5	53.5	57.0	68.8	60.0	61.2
만족도	58.9	52.7	61.9	31.8	50.9	46.3	52.1	59.1	75.0	59.5	50.0

5. 재직기간별 평균 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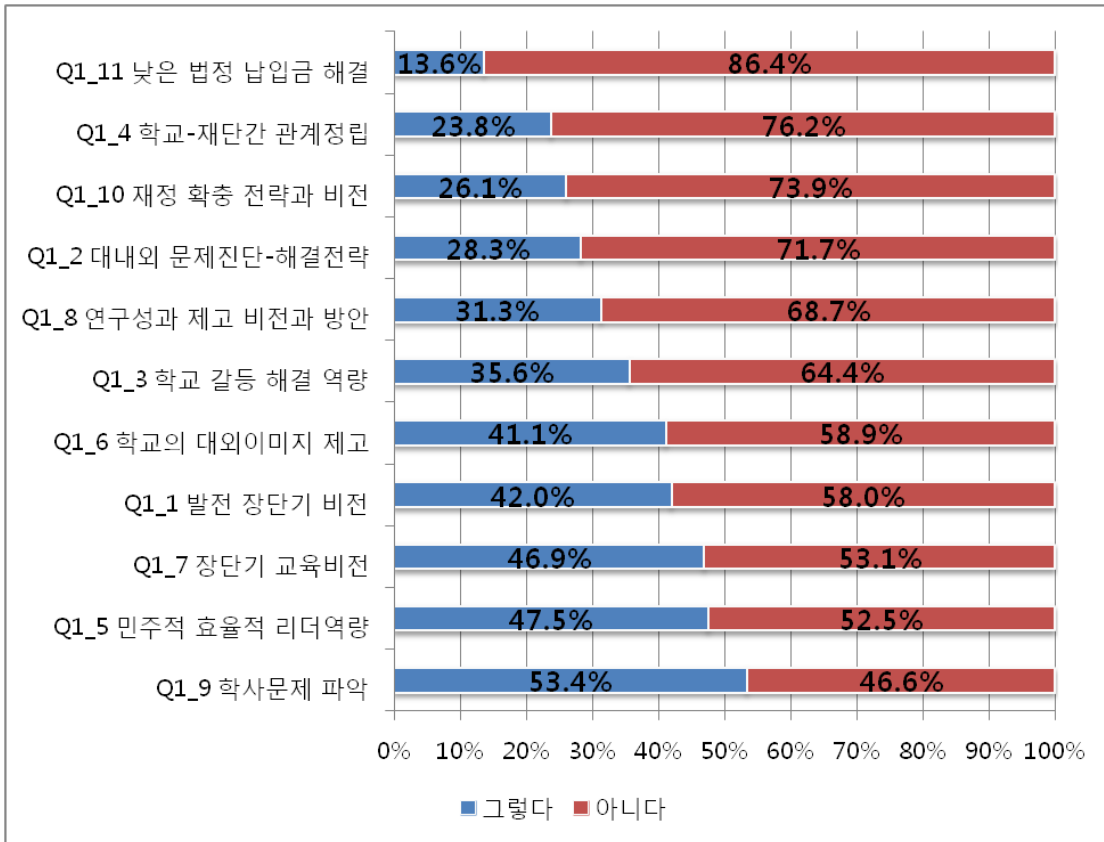
※ 100점 만점 환산 점수

분류 \ 기간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년이상
전체 항목	60.5	54.0	60.9	55.4	49.1	58.8
만족도	59.7	50.7	59.5	54.9	45.1	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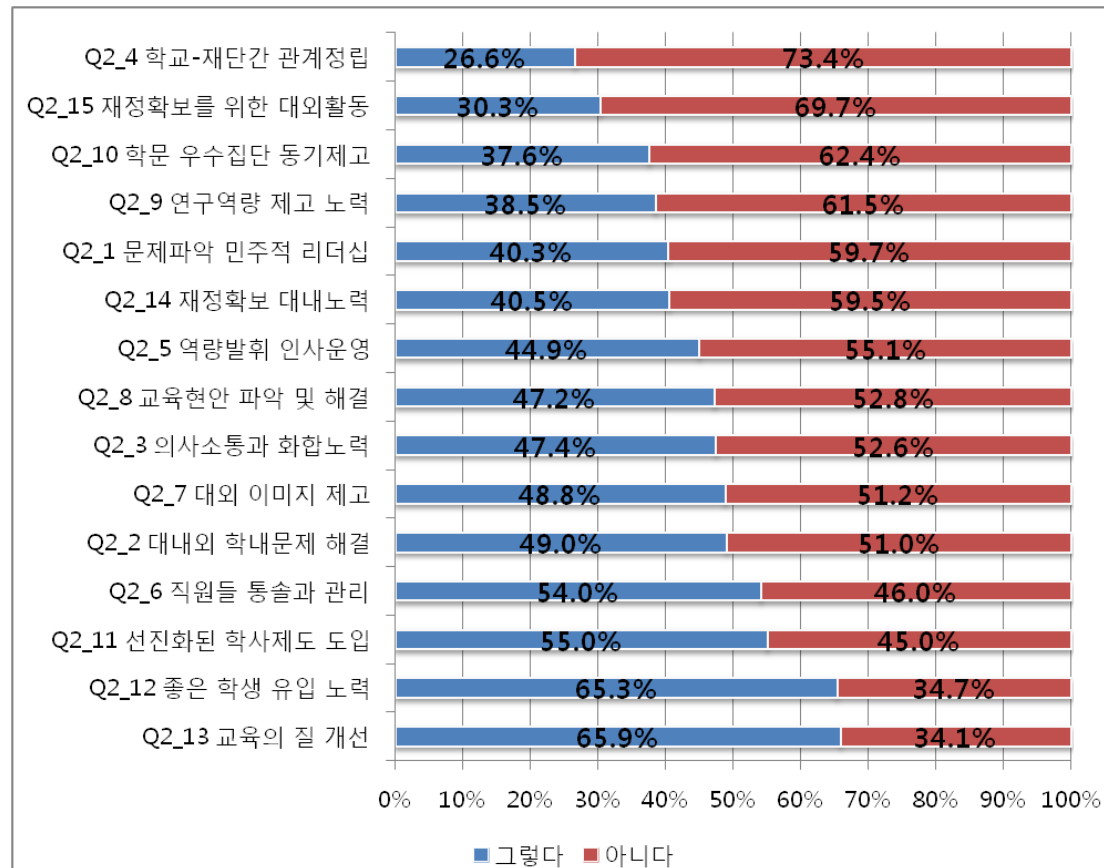
6. 문항별 비교

※ 매우 그렇다-그렇다, 매우 아니다-아니다 통합 비율.(무응답 및 잘 모르겠다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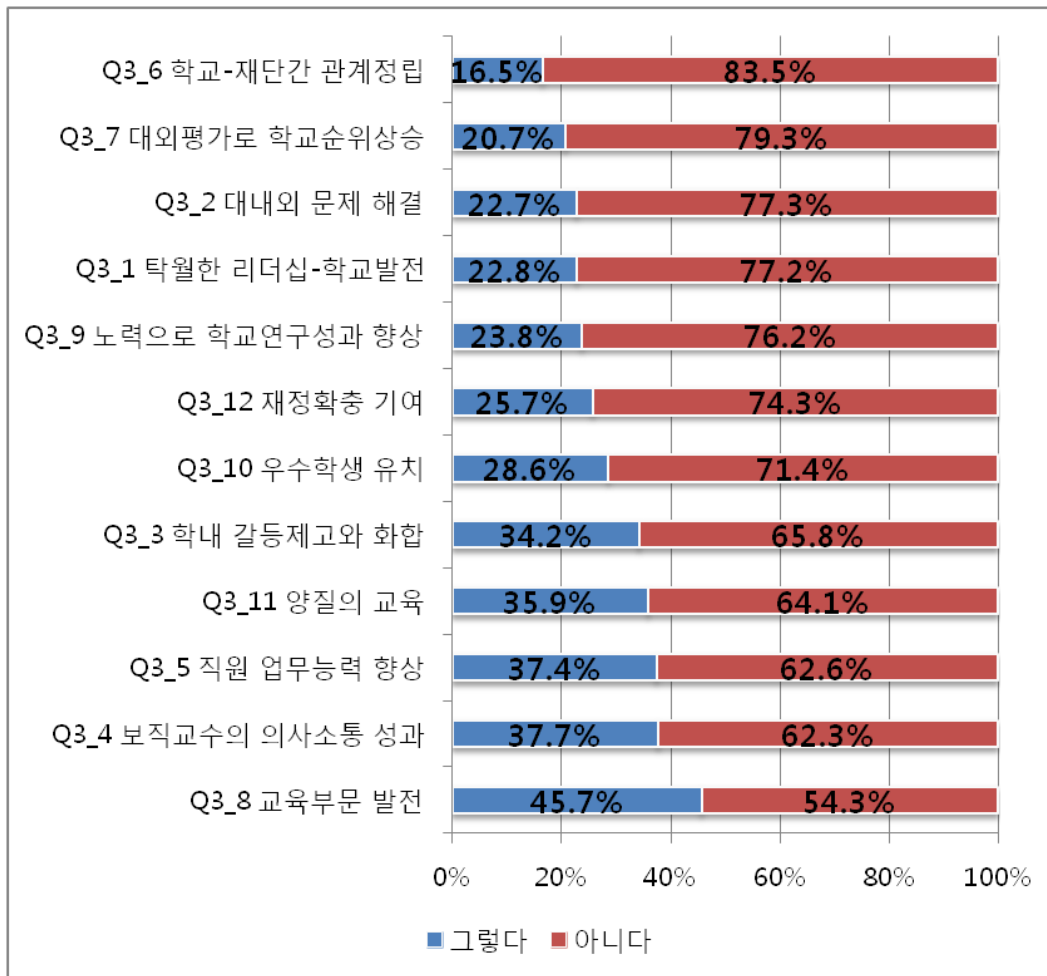
(1) Part. I 비전과 역량



(2) Part. II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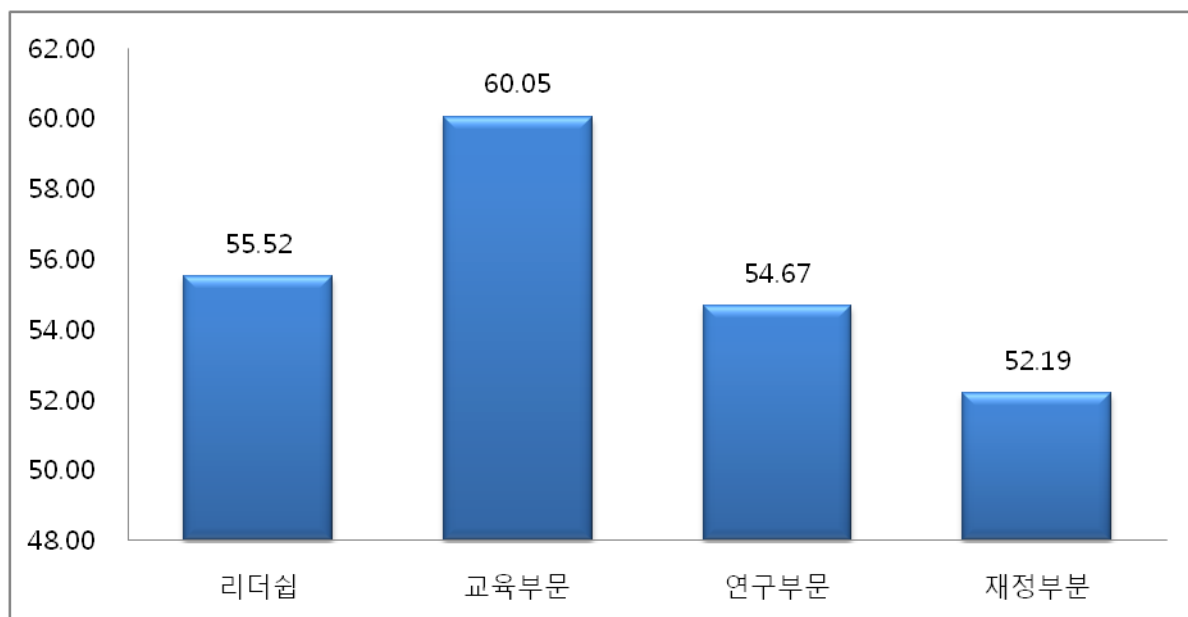


(3) Part. III 결과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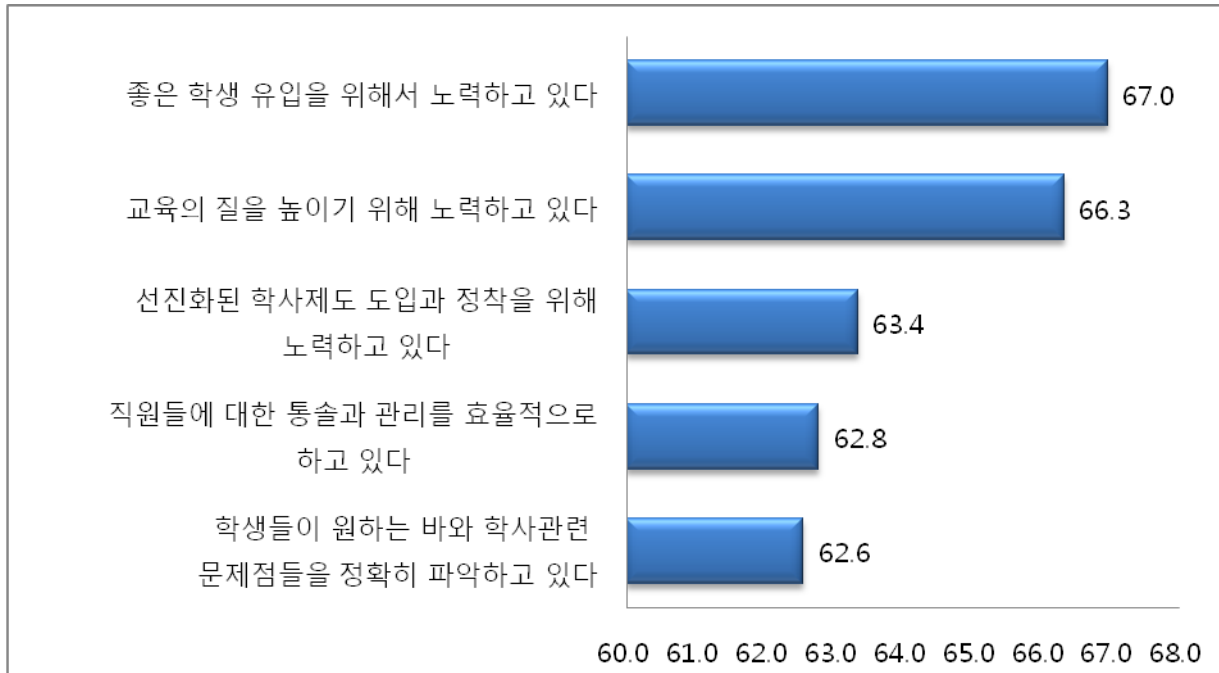
(4) 부문 별 평균 점수

※ 100점 만점 환산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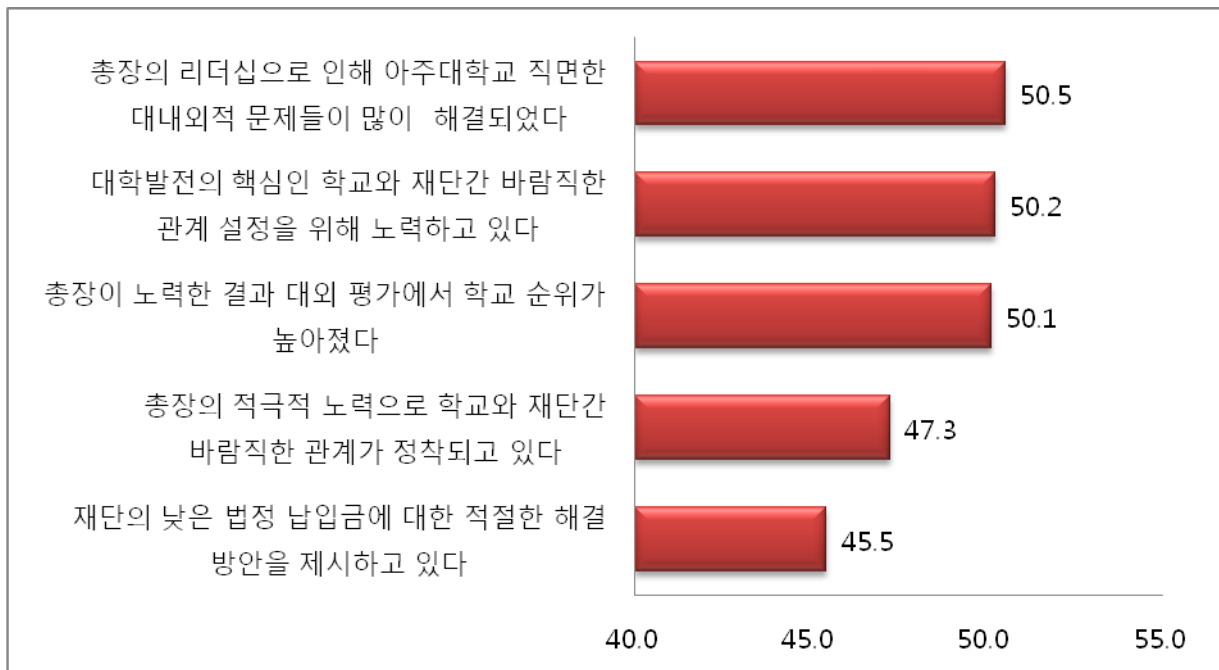
(5) 상위 점수 5항목

※ 100점 만점 환산 점수



(6) 하위 점수 5항목

※ 100점 만점 환산 점수



해석과 의견-총장 업무수행 평가 설문조사 결과 보고

편집위원회

이번 조사는 크게 <비전과 역량(11개 항목)>,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15개 항목)>, <성과(12개 항목)>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부문에서 리더십, 교육, 연구, 재정에 대한 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을 묻고, 마지막으로 <총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체적으로는 63.1%의 교수들이 총장의 업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부문별로 보면 <비전과 역량> 부문에서는 응답자의 64.6%(잘 모르겠다와 무응답자 제외. 이하 동일), <노력> 부문에서는 53.9%, <성과> 부문에서는 70.7%의 교수들이 총장의 업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보다 직접적으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8.3%가 매우 불만족(17.0%)과 불만족(51.3%)에 표기하고 있었다.

항목별 집계치에 비해 직관적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무응답자(잘 모르겠다 포함)의 비율이 <만족도>를 묻는 직접적 질문에서 가장 낮은 4.9%에 불과했다는 결과에 비추어 보면, 교수들은 총장의 업무수행에 대해 총체적으로는 더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응답 비율(잘 모르겠다 포함)은 <비전과 역량> 부문에서는 16.6%, <노력> 부문에서는 18.7%, <성과> 부문에서는 23.5%였으나, 만족도 질문에서 그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평가가 증가한 것은 교수들이 피부로 느끼는 총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어떤 수준에 와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전체적으로 평가가 매우 낮게 나와 있어서 조사결과

해석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떤 부문이 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총장의 업무 수행 우선순위 설정과 관련하여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문별 평가를 상호관계의 측면에 보면, 교수들은 총장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노력의 성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구체적 수치는 첨부자료 참조)

또한 각 부문에 포함되어있는 요소별 평가를 보면 재정부문에 대한 총장의 업무수행을 가장 낮게 보고 있으며 연구와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그 다음이고 상대적으로 교육부문에 대한 업무 수행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ACE 사업, 교육역량강화 사업을 통한 교육영역에 대한 투자 증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재정부문에 대한 교수들의 낮은 평가가 재단이라는 대상과 일부 관련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구부문에 대한 교수들의 평가가 매우 낮게 나온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교수의 연구역량 문제에 대한 교수사회의 여론은 그 책임이 교수들에 있다기 보다는 학교당국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한 일간지의 대학평가 결과 발표 이후 본부가 교수들에게 책임을 묻는 형식의 일방적 제도개혁(연구년 파견 여건 강화, University Professor제도 도입, 단과대학학장 면담을 통한 일방적 독려)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 진다. 교수들은 본부의 관점과는 달리

연구역량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학교 당국이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비전과 방안(68.7%), 연구역량 제고 노력(61.5%), 학문 우수집단 동기제고(62.4%), 학교 연구 성과 향상(76.2%) 등 연구관련 항목에서 교수들은 총장의 업무수행을 분야별 평균 이하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는 총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실제로는 집행부 전체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이 표현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실 여론조사를 일종의 인기투표로 보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이번의 조사결과는 그러한 한계를 일부 고려하더라도 학교운영에 대한 교수들의 생각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결과가 어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적 무기로 이용되기 보다는 학교의 발전을 위한 자료로 긍정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적어도 현상들이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이 본부차원에서 모색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일 것이다.

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이러한 교수회의 노력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외부 컨설팅을 받는 것 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총장이나 본부가 그 여론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도 조사결과를 직접 전달하고 설명하려 한 교수회 의장의 면담요청을 선악을 이유로 거절한 총장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충분한 여론수렴 없는 Top-Down(상의하달) 방식의 각종 정책(단과대 예산 일방 감축통보, 연구년 파견에 자격기준을 도입하는 안, 주차료 버스비 징수 안

등)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이러한 소통을 위한 교수사회의 노력이 과연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하는 비판적 의견을 가진 교수들도 있을 수 있고,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이 객관적일 수 있는가라는 이견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론 조사의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으니, 열린 광장에서 평교수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자세일 것이다.

우리는 아주대학교라는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교수들에게 이 공동체는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기의 대부분을 바친 또는 바쳐야 할 대상일 것이다. 교수들과 그들을 대표하는 교수회는 집행부의 “적”이 결코 아니다. 교수들이 자신의 개인시간을 바쳐 엄청난 양의 서류를 검토하여 회계처리절차의 합리화를 요구하거나, 평교수들의 밑바닥 여론을 수집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아주대학교라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사실 구성원들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총장 취임을 위한 비전이 객관적으로 의미있게 검토될 기회가 전혀 없이, 재단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현재의 총장선출제도 하에서 총장과 그 총장이 구성한 본부가 대학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려운 것은 아주대학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최근 10여 년 사이에 현 총장을 제외한 6명의 총장 중 임기 4년을 제대로 마친 총장은 단 한 분). 재원 조달의 어려움, 제한된 자원,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웃대학들의 투자증대 등의 도전적 상황 하에서 아주대학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열망을 모아, 공동체의 비전으로 조화시켜나가는 총장 선출 절차의 합리적 제도화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고수들의 건강 칼럼

불면증 : 약 쓰지 않고 극복하기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정영기

불면(Insomnia)은 누구나 적어도 한번쯤은 겪을 것이다. 아마 한번도 불면을 겪은 적이 없다면 그는 대단히 특별한 사람일 것이다.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걱정과 근심은 얼마나 많은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은 또 얼마나 많은가? 물론 이보다 훨씬 빈도가 낮기는 하겠지만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모두 우리는 잠을 설치고 만다. 이렇게 하루 이틀 잠 못 이루는 경험이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불면이 장기화 되는 것이다. 불면은 잠들기 어렵거나 잠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즉 도중에 자주 깨거나 평소 기상하는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깨어나서 다시 잠들지 못 하는 경우)를 불면이라고 한다. 불면 때문에 도움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은 만성적인 불면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다. 만성적인 불면은 잠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불면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게 많다. 스트레스, 특정한 종류의 약물, 신체질병, 우울증이나 불안증과 같은

정신장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불면이 나타나는데 불면에 대한 불안이 불면을 장기간 지속케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다시 말하면 잠을 잘못 이루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잠을 잘못 이루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 불면의 경험이 떠올라 잠자리가 곧 각성(의식이 더 명료해지는 것)과 조건반사적으로 연계되어 막상 졸려서 잠자리에 누우면 그 때부터 의식이 명료해진다. 잠 잘못 자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잠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더욱 의식이 각성되어 잠들기는 더 어려워진다. 잠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는데도 잠이 잘 오지 않으면 조용히 침소에서 나와서 다른 일을 하던지 책을 보던가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다가 졸리면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필자는 이 때 할 수만 있다면 대체로 책을 읽을 것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경험 상 독서가 가장 졸음을 유발한다는 것 같다. 이렇게 하여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잠이 들더라도 기상 시간은 평소 기상하는 시간에 맞추어 일어날 것을 권한다. 물론 다음 날은 수면 부족으로 힘들겠지만 다음 날 밤에 오히려 잠들기가 수월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전날 못 잔 부족한 잠을 보충하려는 기전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수면 시간 부족으로 피곤하다고 낮에 누워있거나 낮잠을 자는 것은 좋지 않다. 밤에 잠들기가 다시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늦게 자고 낮에 잠깐 졸거나 낮잠을 자고 다시 밤에는 잠을 잘못 이루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면이 있는 사람들이 낮잠으로써 부족한 수면 시간을 보충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매우 잘못된 대처 방법이다. 불면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낮에도 잠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잘 자기 위해서는 수면 위생을 적절하게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논리이겠으나, 우선 불면의 원인이 될 만한 요인들이 있으면 제거하여야 한다. 그 다음 권고사항으로서는 일정한 시간에 취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졸릴 때에만 잠자리에 들기를 권한다. 어떤 사람들은 일찍 취침하면 더 많이 잘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평소 졸리지도 않은 이른 저녁 시간에 취침한다. 물론 이 때는 잠도 안 오지만 자려고 노력하면 더욱 각성이 되어 평소만큼도 못 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대체로 일정한 신체리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리듬에 벗어나서 잠을 청하면 당연히 잠들기 어렵다. 또한 초저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신체리듬 상 하루 중 잠들기 어려운 때이다. 세 번째 권고사항으로는 잠자리에 누워 바로 잠이 안 들면 계속 자리에 누워있지 말라는 것이다. 이유는 전에 설명하였다. 기상 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잠들기 어려워서 새벽쯤에서 잠이 들었다면 그 사람은 늦은 오전 시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절대적인 수면시간은 짧다하더라도 기상시간이 늦어지면 그 만큼 다음 날 잠이 오는 시간도 늦어진다. 따라서 사람들이 잠을 자는 보편적인 시간대에 잠들기는 어렵다. 늦게 잠들고 늦게 기상하는 패턴이 쉽게 고착될 수 있다. 보통 우리 생활패턴은 아침에 기상하여 오전, 오후에 일을 하고 밤에 잠을 자는 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잠자기 패턴은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운동은 도움이 되지만 오전이나 이른 저녁에 하는 것이 좋다. 취침 시간에 임박해서 하는 운동은 오히려 흥분시키는 효과가 있어 수면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 무리 없이 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체온이 약간 감소해야

한다.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해도 길 체온은 떨어지나 심부체온은 아직 떨어지지 않아 잠드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잠이 안 온다고 하여 술을 마시고 잔다. 이러한 방법은 매우 좋지 않은 방법이다. 술을 자꾸 마시다 보면 나중에는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잠이 잘 안 드는 현상, 즉 내성이 생긴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들 수는 있지만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렵고, 자주 깨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불면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수면 초기에 가벼운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위장 자극 효과, 숙취 때문에 수면에 큰 지장을 받는다.

이상은 불면증이 오래 지속될 때 누구나 취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간단히 소개했다. 핵심은 못 자는 것을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요, 자연스럽게 졸리면 잠을 청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평소 자신의 리듬에 맞게 잠들고 일어나라는 것이다. 한마디 덧붙이면 나이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즉 깊은 잠이 현저히 줄고 수면 도중 자주 깨고, 전체 수면 시간도 줄어든다. 따라서 젊은 시절만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잘 자고 못 자는 것을 비교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소통과 담론

싸이(Psy)의 <강남 스타일> 읽기: B급 똥끼를 중심으로

인문대학 정재식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대해서 한 노르웨이 팬이 엉성하지만 진정성이 엿보이는 헌정 동영상을 유튜브(You Tube)에 올렸다. 거기에 그 노르웨이 팬은 자신이 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는지 다음과 같이 썼다. “Norwegian Style! 이 뮤직비디오는 놀라운 싸이와 싸이의 환상적인 노래에 대한 우리의 찬사입니다. 싸이의 이 신나는 노래와 뮤직비디오는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았고, 많은 영감을 줄 정도입니다. 그 표현들과 끊임없는 율동들, 그리고 순수한 에너지까지, 그냥 재기 발랄 그 자체! 우리는 우리의 감상(과 감사)를 보여줘야만 한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어와 문화를 제대로 접하지 못한 외국인에게 한국어로 제작된 <강남 스타일>이 강렬한 영감을 선사한 비-언어적 “순수한 에너지”(pure energy)는 과연 무엇일까? 자신을 “B급 태생”이라고 칭하는 싸이의 용어를 빌려 표현해 보면 그것을 “B급 똥끼”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비속어임에 분명하지만 똥끼는 <강남 스타일>에서 정말 바보같고 어이없는 행동들이나 장면들을 연속적으로 연출하려고 했던 싸이의 의도나 외국인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준 노홍철의 엘리베이터 저질 댄스와 아줌마들의 관광버스 춤 등의 기이한 매력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용어다. 일반적으로 똥끼는 이상하고 기이한 놈을 지칭하는 또라이(돌아이)에서 파생된 용어로서, 단순히 주위를 불쾌하게 만드는

정신나간 행동이나 기운을 지칭할 때도 있지만 무언가에 미쳐 자신의 열정을 불사르는 그래서 처음에는 황당무계하게 보일 위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상당히 창조적인 기질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똥끼는 예술가나 연예인들의 독특한 개성을 지칭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이처럼 똥끼는 호감과 비호감의 양극단을 넘나드는 강렬한 힘이다. 따라서 똥끼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균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예를 들어 싸이와 함께 연출된 노홍철의 엘리베이터 저질 댄스는 약간의 오차나 어색함이 스며들기만 해도 그야말로 저질, 비호감의 극치로 낙인찍혀 버려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강남 스타일>전체를 가로지르는 싸이의 똥끼는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과잉과 특이함으로 점철되어 있으면서도 비생산적 과잉으로 흐르지 않는다. 특이한 것들을 연속적으로 막 섞어 놓은 듯하면서도 상당히 정교한 연출의 무게가 느껴진다. 이처럼 자연스러움과 정교함의 역동적인 균형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고유한 욕망과 느낌에 충실하면서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산되는 싸이의 희열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팬이 느낀 싸이의 순수한 에너지는 바로 희열로 전환된 싸이의 똥끼에 해당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제한된 지면 관계상 싸이의 B급 똥끼의 특징 중 일부만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자.¹⁾ 우선 싸이는 탁월한 자기-

1) 지금 이 글은 곧 출판될 필자의 논문 「싸이(Psy)의 하비 호스(Hobby Horse)와 B급 똥끼의 양태: 『트리스트럼 샌디』(Tristram Shandy)와 함께 <강남 스타일>(Gangnam Style) 읽기」의 일부를 축약한 것이다. 그 논문은 18세기 영국소설가 로렌스 스톤(Laurence Sterne)의 『트리스트럼 샌디』(Tristram Shandy)의 하비 호스(Hobby Horse) 개념을 중심으로 싸이의 B급 똥끼가 창조적으로 구체화된 말춤의 철학과 형식을 인문학적으로 읽어 내는 글이다. 『트리스트럼 샌디』의 하비 호스(말 모양의 어린이가 장난감, 지배적 열정, 어디에 완전히 꽂혀 집착에 가까운 몰두 상태, 음탕한 여자 등을 의미) 개념이 없었다면 B급 똥끼, 자기-몰입, 희극의 형식 등으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읽어 볼 시도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혹시라도 지면 관계상 아예 생략되어 버린 하비 호스와 B급 똥끼 특히 말춤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위의 논문을 참조하길 바란다. 말춤에 관해서 하나만 간단히 언급하면 <강남 스타일> 성공 요인으로 많은 이들이 충분한 설명없이 말춤(혹은 말 이미지)을 드는 데, 말춤 자체가 세계인을 사로잡은 비-언어적 에너지가 되었다기 보다 탁월한 자기몰입에서 발생하는 희열과 창조성이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흥겹고 역동적인 말의 움직임들 통해 표현되면서 세계인들을 사로잡는 춤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하비 호스로서 <강남 스타일>의 말춤은 외형적으로 말 타는 모습을 취할 때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놀이터에서 리틀 싸이 황민우 어린이가 “느끼면서” 추는 마이클 잭슨 춤, 옆에 멋진 강남녀들과 함께 쓰레기 휴지 더미 맞으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열정적으로 추는 싸이의 코믹한 춤 등 마구간부터 주차장, 지하철, 엘리베이터, 한강변, 도로 건널목 그리고 관광버스 등, 싸이의 말춤(the invisible horse riding dance)은 강남을 관통하여 우리 사회 곳곳의 다양한 맥락들과 조우하면서 여러 가지 양태로 변용되어 펼쳐진다.

몰입 능력을 갖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몰입은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 외부와 단절된 자기 중심적 감각과 아무 상관이 없다. 제대로 된 자기-몰입은 외부로 내부로 흡입해서 함께 동화시켜 버릴 수 있는, 자신의 고유한 욕망에 충실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능력이다. 뮤비 첫 부분 놀이터 장면을 보자. 화면을 짝 채운 거대한 얼굴을 으스스대듯 돌리면서 “오빠 강남 스타일”이라고 정말 진지하게 외치는 싸이의 표정과 제스처에서 우리는 그의 탁월한 자기몰입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이하의 외모에 그렇다고 흔한 의미에서의 특별한 가창력을 소유한 것도 아니지만 싸이는 자기만의 개성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자신의 개성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뚜렷한 엔터테이너다. 당대 최고라 할 수 있는 싸이의 무대 장악력은 바로 그러한 자기-몰입 능력에 기반을 둔 확고한 자신감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 싸이의 B급 에너지는 자기 욕망과 열정에 대한 자의식과 사회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겸비한 희극의 형식으로 표출된다. 강남에 대한 풍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후반부 화장실 장면을 보자. 싸이는 현아와 함께 코믹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Baby Baby 나는 뭘 좀 아는 놈, ...” 물질과 자본의 과도한 이상화에 기반을 둔 한국적 속물의 정점인 강남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경쟁과 비교 논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한다. 외모는 좀 아니지만 강남에서 계속 돌아본 (물론 놀면 놀수록 강남 이데올로기를 더 충실하게 구현하게 될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싸이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한 채 타인과의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강남의 강박관념에 대해 배설물 풍자 즉 똥침을 유쾌하게 날리고 있다. 이 똥침은 강남 내부 (싸이는 외모와 달리 정통 강남인 출신이다)에서 강남의 결핍을 드러내는 장난기 어린 그렇지만 통렬한 풍자를 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싸이가 강남 밖에서 고상한 방식으로 지적으로 훈계하듯이 강남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 자신은 강남이데올로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예외적 존재라는 환상에 사로잡힐 수 있음) 강남 한 가운데서 자기 자신조차 웃음의 대상으로 만들면서 강남 내부의 결핍을 정말 웃기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근육이 울퉁불퉁한 화려한 외모의 기존의 강남 오빠가

아닌, B급 뜯기로 충만한 “사상이 울퉁불퉁한” 오빠로서 싸이는 다음과 같이 똥 누면서 외친다. “난 뭘 좀 아는 놈 ... 유 노 왓아엠생!(You Know What I am Saying)”

한 외국 여기자가 싸이에게 <강남 스타일> 뮤비에서 물질만능주의와 한국적 속물성의 정점인 강남에 대한 비판을 의도했는가라고 물어 보았을 때 “뭘 좀 아는 놈 싸이”는 “별 의도 없이 재미있는 것 만들려고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싸이는 인터뷰 기술이 탁월하다. B급 정서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그가 마치 그러한 의도를 지녔던 것처럼 인정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멋지게 포장하려고 까지 한다면 많은 이들을 사로잡는 자신의 B급 쿨(cool)함이 사라져 버릴 수 있음을 아는 가수다. 그런데 그의 다른 인터뷰들을 종합해서 잘 분석해 보면, 그는 사회 비판의식이 강한 가수는 결코 아니지만 적어도 분명 강남의 허영과 그 이면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바로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뜯끼를 어떻게 표현할 때 사람들에게 먹힐지 잘 알고 있는 아티스트임에 분명하다. 만약 싸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형적인 강남스타일 즉 돈 많고 허영기 다분한 논쟁돌 클럽 남녀들의 화려한 움직임들을 강남스타일로 규정하고 그것의 화려함과 자극적인 감각만을 뮤비에 담았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예외적 위치에서 자신은 문제없다는 전제하에서 훈계조로 강남의 허상을 현학적으로 비판하는 것 보다, 어떤 면에서 싸이처럼 순수하게 자기 뜯끼대로 그렇게 즐겁게 노는 것이야말로 바로 획일화된 욕망 형식을 강요하는 강남 이데올로기를 보다 근원적으로 전복할 수 있는 힘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마저 다시 자본주의 상업 논리에 포섭되기 쉬운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싸이의 뜯끼의 핵심은 막강한 체 <강남 스타일>의 거대한 상업적, 문화적 성공에서 얻어 낼 이익에만 눈이 먼 업계, 언론, 관료 등이 달라붙으면서 싸이의 B급 에너지가 왜곡되거나 변질될 위험 역시 크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싸이 현상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문화비평이 수반되어야 하는 이유다.



아주대학교 교수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아주대학교 울곡관 2b3호

전화: 031)219-2240

팩스: 031)219-1b08

전자 메일: lisani@ajou.ac.kr

소 식

I. 2012학년도 2학기 신입교원 환영회 개최

지난 9월 25일 교직원 식당에서 교수회 주최 2012학년도 2학기 신입교원 환영회가 열렸다. 9명의 신입교원 중 6명의 신입교원과 교수회 대의원 6명이 참석하여 상호 인사와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입교수들은 아주대학교에 부임한 소감과 포부를 전하였고, 대의원들은 신입 교수를 환영하고, 아주대학교 교수로서의 정신과 긍지를 전하는 자리가 되었다. 교수회에서는 매 학기 신입교원 환영회를 개최하여, 교수들과의 소통을 더욱 넓혀갈 예정이다.



2012년 9월 25일 신입교원 환영회 사진

II. 제 45차 대의원회 개최 및 후속 조치

지난 10월 31일 수요일 12시에 교수회 사무실에서 제 45차 대의원회가 열렸다.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차 및 통근버스 유료화 건

- 1) 지난 10월 29일 총무처에서 보낸 주차 및 통근버스 유료화 의견 수렴에 대해 교수회 입장을 표할 필요가 있음.
- 2) 유료화에 대한 '학생과의 형평성'이라는 입장은 적절하지 않음. 39차 평의원회에서 학생이 본 건을 제기하여, 학생 및 평의원들과 논의 후 기각한 바 있음.
- 3) 교수회에서는 본부가 유료화 진행을 재고하고, 전반적 문제에 대한 기획안을 마련하여 평의원회에서 보고, 협의하도록 할 것임.

2. 펀드 투자 관련 후속 조치 건

- 1) 본부와 교수회 합동 펀드 투자 조사 보고서가 나왔지만,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계속 제기 될 것.

- 2) 펀드 투자에 관한 총장의 명확한 문제 해결이 필요함.
- 3)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와,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아래)에 관해 총장이 마무리 지을 것을 요구할 것임.

- 아래 -

- ① 과오 시인
- ② 책임자에 대한 입장 표명(확정 손실건에 대한 책임 추궁)
- ③ 미처분 펀드 문제 조속 해결
- ④ 회계부정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위 두 건에 대해서 관련 공문을 총장에게 전달하였으며, 통근버스 유료화 관련하여 대학은 이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 카드(40만원 상당)를 발급할 예정이라 밝혔다.



펀드 투자 조사 및 총장 업무수행 평가 결과보고회

●일시 : 2012년 11월 8일(목) 오후4:30 ●장소 : 울곡관 영상회의실 ●주최 : 아주대학교 교수회

편집위원회 : 구형건 (편집책임),
김상배, 김태승, 김혜선, 이재호, 정경훈